

선의 인플레

선(禪)이 요즘 국내외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세계 각국에 선도량이 생겨나 날로 수행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외 많은 선방에는 수행승들이 항상 구름처럼 모여 피나는 정진을 하고 있다. 또 일반인들은 물론 벽안의 외국인들까지 사발한 채 다수 참여하여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고 한다. 그야말로 '선의 전성시대'를 맞은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주변에는 선의 인플레에서 오는 부정적인 현상마저 나타나 선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늘고 있다. 여기저기 선방, 또는 선도량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 '선도사(禪道師)'란 자들이 폭발(簇出)하여 선이 요가, 기질학, 기공, 단전 호흡 등 무척이면서 알 듯 모를 듯한 선수련을 통하여 건강의 비법인 양 널리 퍼지고 있다. 또 선이란 용어가 무차별적으로 남용되면서 더욱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듣고 볼 수 있는 용어만 해도 선식(禪食), 선화(禪話), 선무(禪舞), 선다(禪茶), 선체조(禪體操) 등 수없이 많다. 도대체 '선이 뭐길래' 이처럼 모든 것에 결부되는가. 또 선이란 말이 들어

가야 고상하게 보이는가. 그리고 무엇이 이토록 많은 선의 용어를 만들어내게 하였는가. 과연 이것이 무사불용(無事不爲)하고 무소불위(無所不爲)하며 무처불입(無處不入)하는 선의 자재로움에서 오는 올바른 현상인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선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인식이 잘못되어 온 탓이다. 즉, 선의 본질이 올바른 방향으로 파락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그리고 무책임하게 확산된 데서 오는 왜곡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마음을 통하여 깨달음을 이루는 선의 종류는 많다. 그러나 아주 쉽고 크게 두들겨로 나누자면 깨달음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출가선과 세속에서 심오한

사색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적인 재가선으로 나눌 수가 있다. 원효가 말한대로라면 전자는 성취 불법선(成就佛法)이요, 후자는 교화중생선(教化衆生)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둘다 모두 선인 이상 그 본질은 같다. 다만 수행의 목적이나 방법, 그리고 그 실천양상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좀더 이상적인 선은 이 둘이 서로 상보적이며 유기적인 관계에서 통일융합된 일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둘이 서로 유리된 채 양극화된다면 둘 모두가 선의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와같은 현상이 일부씩 제 외한 오늘 우리 선의 상황이 아닌가 한다. 즉 위의 둘이 서로 양극화 될 경우, 전자는 신비화에 떨어질 위험이 있고, 후자는 통속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즉 전자만으

로 끝날 때는 자리적(自利的), 관념적, 초월적 선이 되고 후자에만 기울어질 때는 기복적, 신비적, 건강적 선으로 떨어지고 만다. 오늘 우리의 선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한다. 이런 까닭에 오늘날 우리의 선이 올바른 위상을 되찾고 그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선의 고고화와 대중

화, 관념화와 생활화, 신비화와 실천화, 독점화와 일반화, 산중화와 도시화한 양극성을 탈피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한국의 선이 수도자나 기이(高異)를 탐하는 이의 개인적인 것에 함몰되어 현실 및 타인이나 집단과의 인연이 끊어져 관념으로 끝나거나, 민간신앙적 기복이나 건강·장수를 위한 비법으로 끝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선의 궁극은 자아완성을 성취할 뿐 아니라 일상속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고, 실천으로 행해져야 하며, 남과 이웃을 위해 주고 베푸는 이타적 보살행으로 연결될 때 그 참된 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한
 (고려대 교수·국문학)

차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도 점점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동서화합 자매결연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마음이 맞으면 삶은 도토리 한알을 가지고도 허기를 면할 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간의 화합이 모든 국가 대사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선결 요건을 온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지역감정을 공문화 해 시민 개개인이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대승 보살심으로 후유증없이 치료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동서화합 남북화해

영국의 민주주의는 종교갈등의 역사로, 프랑스 민주주의는 신분갈등의 역사라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정치학자들은 누구나 주저없이 남북과 동서로 갈라진 지역갈등을 든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치고 그 나라의 주도적 갈등을 '마치 아무일 없었던 것처럼' 피해간 사례는 없기에 지역갈등은 한국 민주주의의가 풀어내야 할 공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지난 3일 '민화협' 출범식에서 '자타불이'의 정신으로 동서화합과 남북화해를 이루자고 촉구했다.

“自他不二 정신으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약체 '발족'

“마음 맞으면 도토리 한알로 허기 면해”

안(公案)과도 같다는 것이다. 국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역·남북화합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관용의 시대'를 통과할 때라는 말이 있듯이 호남 출신 대통령이 개혁과 통일을 선도하

고 있는 이 시점은 어느 때보다 '관용과 화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요구와 한반도의 동서 화합, 남북화해를 실현하려는 민족화합운동연합(준비위원장 김병걸)이 발족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1백70여 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 민간통일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지향하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화협)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지역과 계층, 보수와 진보 등 정치적 견해들을 초월해 국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민화협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바탕으로 △99년 8.15 통일대축전 준비 △민간차원의 통일기금 모금 △2002년 월드컵 남북공동 개최를 위한 체육교류 △대북경제재제 완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 연구 등을 중점추

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정부 출범 후 대구와 광주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동서 대화합 분위기가 전남과 경남, 충남북, 강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처음에 지방자치단체들끼리의 자매결연 형식으로 추진되던 지역주의 해소운동이 최근에는 경제·문화·예술·관광 등 전분야로 넓혀져 정치권의 움직임과 맞물려 동서화합 무드는 점점

불교의 눈 “화합은 생활공동체의 생명”

직지사 조실 관음스님은 연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내는 말씀에서 “지역간 계층간 차별을 없애려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새 대통령은 허공의 공기와 같이 마음을 비워 국민적 대화합을 도출해 낸 다음 나라를 다스려 주기 바란다”고 설한 바 있다. <갈리 울장대품>은 승단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데 긴요한 여섯가지 일을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성실한 말, 둘째 성실하고 친절할 행위, 셋째 성실성

과 동정심, 넷째 공유재산을 평등하게 이용하기, 다섯째 순결한 마음으로 같은 계를 따르기, 여섯째 사물을 모두 바르게 보는 일이다. 이 여섯가지 중에서 '바르게 보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나머지는 주변 조건이다”라고. “진실로 화합이야말로 진정한 생활공동체나 한 조직체의 생명”(대반열반경)입은 물론이다. <중지부 경전>은 화합중(和合衆)을 이렇게 설명한다. “정당한 비구는 화합하고 환희하며 정론치 않고 우유와 같으니라. 서로 친애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느니라.”

장수비결은 자비심과 긍정적 사고 “종교 믿으면 오래산다”

美 듀크대연구팀 '종교활동과 혈압' 조사

종교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들은 비종교인들에 비해 혈압이 낮게 유지돼 심장·혈관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이 적어진다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평소 긍정적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듀크대 해럴드 피니히 박사 연구팀은 최근 <정신의학 국제지널>(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y in Medicine) 여름호에 게재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활발한 종교생활을 하는 노인들의 혈압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종교인이 많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986년과 1989~1990년, 1992~1993년 3차례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2천3백91명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여부와 혈압의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심장마비나 심장발작을 일으키기 쉬운 혈압수치인 최소혈압 90이상인 사람이 1

주일엔 한차례 이상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그룹보다 그렇지 않은 노인 그룹에 40%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노인의학연구소소장 레너드 폰 박사는 8일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오래 산다는 것은 유전, 음식 등과는 무관하며 그 보다는 긍정적인 사고, 종교적인 신앙, 자비심같은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폰 박사는 1백세이상 장수하고 있는 1백57명을 포함, 총3백50명을 대상으로 10년동안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학자들은 앞으로 “단순히 수명에 세월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세월에 생명을 얹어주는 데 목표를 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는 의미있는 삶에 무게를 뒀다 한다는 설명이다.

김재경 기자

초·중·고 결식학생 11만2천명

가정경제를 책임진 가정의 실적이 늘어나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 못하는 '결식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교육부가 파악한 8월말 현재 전국의 결식학생은 11만2천8백48명, 이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이 연초 집계한 2만7천8백62명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 7월말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파악한 9만8천8백 여명보다 한달 사이에 무려 1만4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이들 결식학생의 점심식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 2백30억 가운데 2백7억8천만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나머지 부족분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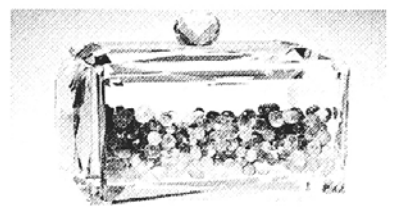
시신 화장후 사리 만들어 안치

자화사리研 발명특허 부패안돼 영탑봉안 적합

화장으로 인한 유골 분말에 대한 혐오감을 줄여 화장제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례 방법이 개발됐다.

한울정신문화원 부설 자화사리연구소 김준원소장(45)은 지난 7월9일 '화장후 남은 유골을 결정체(사리)로 만드는 방법'이란 명칭의 발명특허를 받아 보급에 나서고 있다.

자화사리의 제작방법은 화장한 유골(골분상태)을 2000℃ 이상의 고온으로 완전 용해시켜 한 방울씩 받아내어 자연스러운 구형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것. 사리 모양의 결정체로서 외



◇자화사리는 유골을 2000℃ 고온에 용해시켜 만든 결정체로 진짜 사리처럼 영탑한다. 견장 진짜 사리 만듬이나 보석처럼 맑고 영롱해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전혀 없어 가정에서조차 모실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씹을 염려가 없어 영구적으로 봉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탑에 모시기에 적합한 것이 장점이다. (02)575-4333. 김재경 기자

석용산 스님 출판 (수필집,시선집) 기념대법회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수행자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또시는 글
 회주 석용산 큰스님께서 3년 고행을 마치고 포교활동을 재개하시게 되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자가 인생의 승리자라 하였습니다. 기도 기간중 보여 주셨던 어법하신 스님의 인욕수행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수행자들에게 영원한 귀감이 되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을 하오니,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부산 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대구 공덕원 주지 석지광 합장

- 부산**
 - 첫째날 <강연 및 장학금 전달 그리고 찬불가>
 - 일시 : 1998년 9월 17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제문화센터(국제신문 4층) 대강당
 - 둘째, 셋째날<강연회>
 -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19일(토) 오후 2시(이틀간)
 - 장소 : 부산공덕원 대법당(용호동 부산은행 5층)
 - 연락처 : (051)625-2253, 2254 / FAX : (051)623-3946
- 대구**
 - 일시 : 1998년 10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대구공덕원 대법당(만촌동 2군 사령부 후문)
 - 연락처 : (053)741-0077, 0088 / FAX : (053)741-0066

· 주최 :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사회복지법인 공덕원
 · 후원 : 부산불교신문회, 불교부산방송,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동회, 대한불교부산지구청년회, 도서출판 문학수첩

